

사설

사찰 생태환경을 보존하자

사찰은 삼세(三世)의 도량이자 이 시대의 정토(淨土)이다. 단순히 불교라는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뚜렷히 물려줄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양호한 사찰의 생태환경이 크고 작은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날에는 사찰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생태환경을 지키고,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본분사가 이시대의 화두로서 대두되고 있다.

본지는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 '사찰생태연구소'의 108사찰 생태기행을 지면에 담기로 했다.

지난 80, 9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모형

이 오늘날의 사찰과 사찰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산립이다.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사찰은 자연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이상적인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에게도 건전하고, 인간에게도 건강한 상생의 공간이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모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연과 인간의 온전한 조화로운 관계의 만남의 장으로서의 사찰의 양호한 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전래 이후 1600여년동안 자연환경을 유지해온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계 보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사찰내에서도 천자적인 생활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템플스테이 지속 추진해야

조계종은 내년도 템플스테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를 위해 사찰 개보수비 10억원을 포함 프로그램 개발비, 홍보비 등으로 모두 3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템플스테이가 실시된 것은 올해가 첫 해로서 아직 생소한데 이에 관한 안내책자나 교본도 없어 이를 추진하고 싶어하는 사찰이나 관계자들도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화장실 목욕시설 등의 개보수에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스님들의 일상과 수행 모습을 공개 가능한 범주 내에서 보여줌으로써 한국 불교의 참모습을 알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템플스테이를 영구사업화 한다는 전제아래 템플스테이에 관한 교본과 안내책자 및 안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템플스테이를 시행하는 사찰과 외국인 투숙객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을 소개해 주어야 사찰에 머무는 동안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 있고, 사찰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믿는다.

템플스테이는 국제포교만이 아니라 국내포교에도 자극제가 되는 사업이다.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템플스테이가 사찰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고 우리불교의 참모습을 해외에 전하는 새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필요한 경우 조계종 주관아래 템플스테이 진행을 위한 신도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 전국에 걸쳐 공모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

신도전문교육기관 42곳 인가

조계종, 47개 불교대학서 신청 실사·결정

Table with 2 columns: 지역 (Region) and 불교대학명 (Buddhist University Name). Lists 47 universitie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Seoul, Incheon, Gyeonggi, etc.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9일 총 42개 불교대학에 대해 신도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했다.

지난 2월 19일 신도전문교육기관 평가 제정 공포법에 따라 기존의 불교(교양)대학 및 신규 불교대학에 대해 포교원이 신도전문교육기관 인가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7개 대학에서 인가신청을 해서 서류검토와 실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된 것.

이같은 수치는 '불교(교양)대학 등록 및 관리령'에 따라 등록된 이전의 70여 불교교양대학에 비해 20여곳이 적은 수치다. 하지만 교육시설과 내용을 갖춘 일정 수준 이상의 불교대학을 인가, 전문교육기관

“자원봉사, 불교대 필수과목으로 포교사고시에 관련문항 포함을”

박용하씨 주장

“불교대학에 자원봉사 관련 과목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설치하고, 포교사 고시에서도 관련 시험 문항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 대한불교사회복지연구원(원장 해충)이 창간한 학술논문집

<불교사회복지>에서 박용하 씨(개금사회복지관장)가 '포교사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기하고, 포교사를 자원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포교사 345명을 대상으

로 3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기초로 연구한 이 논문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88.7%가 포교사의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49.8%의 포교사가 자원봉사관리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 84.4%는 자원봉사활동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85.3%의 포교사는 포교사 양성기관인 불교대학에서 자원봉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정작 78.2%의 포교사는 포교사 고시의 필기·실기 시험에서 자원봉사 관련 내용의 시험을 치러본 적이 없다고 답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하 씨는 포교사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불교자원봉사센터로서 포교사단 역할 정립 △각 사회복지법인 중심의 불교사회복지연구 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인(사진, 사교,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

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정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정진석 서울 천주교구장 부처님오신날 축하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은 14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교구장으로부터 2546년 부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를 전달 받았다.

정진석 주교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며 "그 동안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표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 주교는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큰 희망의 징표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사진 오른쪽)과 외환카드 백은철사장이 15일 부다피아-외환카드 제휴협약에 조인했다.

부다피아-외환카드 제휴

포교기금 확충·불자들에게 많은 혜택

현대불교신문사는 불자카드인 '부다피아카드' 출시 1주년을 맞아 불자들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보다 많은 포교 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환카드와 제휴하고 사업을 확대했다.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과 외환카드 백은철 사장은 15일 외환카드사에서 양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다피아-외환카드 제휴 조인식을 갖고 불자들의 편리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면서 포교기금을 마련해 불교의 생활화를 앞당기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외환카드와 제휴한 부다피아카드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중국대

명원 할인서비스 등 국내 최고수준의 경쟁력과 서비스를 확보하고 수익금은 불교 포교 복지 기금으로 조성된다. 박용영 기자

마곡·불국사 주지선출 6월3·5일 산중총회

조계종 6교구 마곡사와 11교구 불국사가 주지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6월 3일, 5일 각각 개최한다. 마곡사 입후보 등록기간은 5월 27-28일이며, 28일까지 거주 신고를 받는다. 또 불국사 주지 입후보 등록기간은 26-28일이며, 거주 신고기간은 25일부터 28일까지다. 김원우 기자

중앙승가대학교 제2회 승가학 학술세미나 근대 이후 인문학에 나타난 불교관

모시는 글

귀의삼보하옵고, 국내 유일의 승가교육 전문기관인 본교에서는 승가교육의 방향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이어 '제2회 승가학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近代以後 人文學에 나타난 佛敎觀」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승가학의 정체성이 상당부분 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6(2002)년 5월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중 범 합장

- ◇ 일시 : 불기 2546년(2002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중앙승가대학교 본관 4층 대강당
◇ 주최 : 중앙승가대학교
◇ 주관 :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
◇ 후원 : 조계종 교육원, 불교방송, btn,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주간불교, 만불신문...

문의 : 031-980-7716 (교학처)

◇세미나 일정

- 제 1부 개회식 (10:30-10:50)
· 삼귀의례 · 반야심경봉독
· 인사말 · 기념사
· 축사 · 입장안내

제 2부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10:50-16:30)

- 제 1주제 발표(10:50-11:20) [역사학의 불교관] ---허홍식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제 1주제 토론(11:20-11:40)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
· 점심공양(11:40-13:00)
· 제 2주제 발표(13:00-13:30) [어문학의 불교관] ---임기중 교수(동국대 국문학과)
· 제 2주제 토론(13:30-13:50) ---이진오 교수(부산대 한문학과)
· 제 3주제 발표(13:50-14:20) [종교학의 불교관] ---윤이훈 교수(서울대 종교학과)
· 제 3주제 토론(14:20-14:40) ---홍신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 제 4주제 발표(14:40-15:10) [철학의 불교관] ---신오현 교수(경북대 철학과)
· 제 4주제 토론(15:10-15:30) ---안성두 교수(충북대 감사)
· 휴식(15:30-15:40)
· 제 5주제 발표(15:40-16:10) [미술사학의 불교관]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
· 제 5주제 토론(16:10-16:30) ---홍윤식교수(국악예교 교장, 전 동국대 교수)

제 3부 종합토론 (16:30-18:00)

- 사회 :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 토론 참가자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사용서원
· 폐회